

2011. 1

January

| 광 | 학 | 단 | 신 |

회원사 동정

이달의 신규회원사-정회원(1개 사)

(주)엔투에이

- 대표 : 김풍전
- 전화 : (031)355-0626
- 팩스 : (031)355-0609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500-73, 500-96
- 홈페이지 : www.n2a.co.kr
- 주요 품목 : 초정밀금형가공

삼성전자(주)

CES 2011 '편(Fun)' 하게 소통한다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 전시회 CES 2011을 편(Fun)하게 소통한다”

삼성전자(대표·최지성)가 새로운 형식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기조연설을 보여 주는 티저 영상 4편을 페이스북과 기업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기조연설에 대한 사전 호기심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카드편·어항편·팝콘편·해바라기편 등 4편의 기조연설 티저 영상은 ‘기술로 구현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A Story of Human Nature Enabled By Technology)’라는 주제로 진행될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사업부 윤부근 사장의 CES 2011 기조연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부근 사장은 지난 2009년 9월 유럽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IFA 2009 개막 기조연설과 올해 CES 2011 기조연설 등 유럽과 북미를 대표하는 양대 가전 전시회에서 모두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한층 높아진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CES 2011 이벤트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전 세계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TV·스마트폰·스마트 미디어·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AV제품·모니터·PC·카메라 등 2011년 삼성전자의 주요 신제품을 볼 수 있는 프레스 컨퍼런스와 윤부근 사장의 CES 2011 기조연설을 페이스북(www.facebook.com/samsung-tomorrow)과 기업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미국가전협회(CEA)가 주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CE) 전시회로, 2011년 행사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삼성전자(주)

삼성디지털이미징사업부 구미 이전

삼성전자(대표·최지성)의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광학기기를 생산하는 삼성디지털이미징사업부가 구미시로 이전한다.

삼성디지털이미징사업부는 국내 유일의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1만5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450여명이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구미사업장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 광학기기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확대시켜 휴대전화, 반도체와 함께 삼성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기(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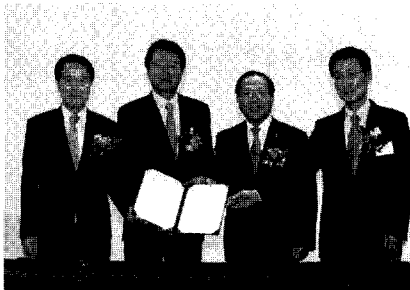
국내 최대 전자부품 업체인 삼성전기(대표·박종우)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키로 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1월 3일 자사 수

원사업장에서 박종우 사장 등 삼성전기 임직원들과 130개 1, 2차 협력회사 대표 및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대내외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갖고, 동반성장 8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8대 추진방안으로는 ▶중소 협력회사 납품 대금 100% 현금 지급 ▶상생펀드 1,000억 원 조성 협력회사 자금 지원 ▶기술개발 협력사업 강화 및 추가 ▶2차 협력회사 직거래 전환 및 지원 확대 ▶원소재가 변동분 부품 단가 반영 ▶신뢰성 장비 및 계측기 교정 지원 ▶협력회사 특허 및 기술보호 방안 마련 ▶협력회사 교육 훈련을 위한 상생아카데미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기 박종우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반성장 8대 추진방안이 삼성전기와 협력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에서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박종우 삼성전기 사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사장(왼쪽부터 순서대로)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신도리코
임원인사 발표**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지난 12월 21일 임원 인사 발령 결과를 발표했다. 허용봉 신도리코 DS판매 사

장과 이원규 신도에이스 사장을 상무직으로, 이상화 신도리코중앙판매 사장과 김성웅 홍보실장을 이사직으로 승진 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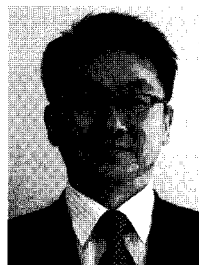
▶신도리코 허용봉 상무



▶신도리코 이원규 상무



▶신도리코 이상화 이사



▶신도리코 김성웅 이사

**(주)신도리코
'A400' 굿 디자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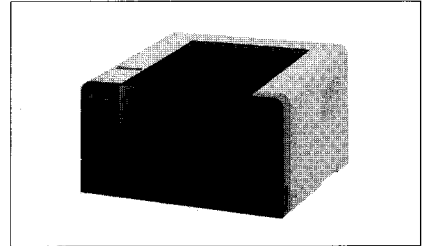
신도리코(대표·우석형)는 자사 레이저 프린터 'A400' 시리즈가 '굿 디자인 어워드 2010(Good Design Awards 2010)' 전자제품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건축디자인 박물관에서 매년 가전, 자동차, 생활용품 등 산업부문 전반을 아울러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며 선정 제품은 작품으로 인정받아 시카고 건축디자인 박물관에 영구소장 된다.

신도리코의 A400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자인그룹 영국 탠저린과 파트너십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세련된 디자인 감각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가 높게 평가받아 전자제품 중 프린터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회사 김성웅 홍보이사는 "A400 시리즈는 신도리코의 인간중심의 기업문화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기술정신을 집약한 디자인으로 설

계되었다"라며 "계속해서 성능과 효율, 디자인까지 두루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프린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도리코 프린터 'A400' 시리즈

**에스엔유프리시전(주)
태양광장비 86억 공급계약**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박희재)이 78억원 규모의 태양전지 장비를 수주했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며, 국내 한 태양전지 업체에 구리·인듐·갈륨·셀레늄(CIGS) 박막 태양전지용 증착장비를 납품하게 된다.

태양전지 장비 관련 첫 수주를 기록한 에스엔유프리시전은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실적 확보로 새해 매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술력을 확보해 놓고도 지난 2년 반 동안 실적이 없어 고생을 했다"면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태양전지 장비 분야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이오테크닉스
'IBK수출탑' 수상**



▶ IBK수출탑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사장)

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가 지

난 11월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외국시장 개척과 무역 확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IBK 수출탑 시상식'에서 은탑 수출탑을 수상했다.

기업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외국시장 개척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범적인 길을 걸어온 우수 중소기업 임직원들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이기 위해 명예의 전당 헌정식, 수출탑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IBK수출탑은 최근 1년간 기업은행과 수출 거래한 실적이 20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173개 기업이 첫 회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8000만 달러 이상 수출거래 기업에 수여하는 은탑은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업체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한 3개 회사가 상을 받았다. 수상 기업은 'IBK 수출탑' 외에도 기업과 임직원에게 대한 외환 관련 수수료 우대와 경영컨설팅 등 혜택을 받는다. 본점 내 상설전시장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도 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외환은행과 통합메일센터 제휴



▶ 지난 12월 17일 김수현 외환은행 부행장과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메일센터 운영 혁신 프로젝트' 업무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중구 정동 한국후지제록스 본사에서 외환은행(은행장·래리 클레인)과 '통합메일

(주)삼양옵틱스

2010년 매출 호조로 지식경제부장관 유관기관 및 유공자 표창 수상



▶ 지난 12월21일에 열렸던 2010년도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삼양옵틱스 부설연구소 추병욱 수석연구원(왼쪽 세번째)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삼양옵틱스(대표·정문영)는 2010년 매출의 대폭적인 호조세에 힘입어 연말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연이어 수상했다.

먼저 지난 12월9일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되었던 2010년 지역전략산업 연석회의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2008년 진행했던 지식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인 "홈 시큐리티용 고해상 네트워크 카메라를 위한 CCTV Lens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화한 SCVHM4012AS 제품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날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12월21일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2010년도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삼양옵틱스 부설연구

소 추병욱 수석연구원이 기술개발 및 매출신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2010년 한 해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단결한 결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54%, 353% 증가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며 "이와 관련한 유공표창들은 회사,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모든 삼양옵틱스 가족들에게 수여되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 혁신 프로젝트' 업무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번 조인식을 통해 외환은행이 청구서, 고지서, 우편물(DM) 등 고객 대상 문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 구축하는 DM 센터를 향후 4년 간 운영하며, 문서 제작에서부터 발송, 관리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 인쇄 시스템과 솔루션, 그리고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외환은행은 새롭게 구축하는 DM 센

터를 통해 고객 맞춤형 우편물을 제작하고,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분산되어 있던 DM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업무 생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한국후지제록스는 MPS(통합출력관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DM, 전자문서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인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며 “대기업, 금융회사,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 서비스 경험에 기반을 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대학생 사회적 기업가 후원금 1천만 원 전달



▶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오른쪽)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대학생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는 지난 12월 9일 서울 성북구 평창동에 위치한 민간 비영리 단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후원행사에서 대학생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젝트인 ‘희망별동대’ 지원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 한 달여 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기반으로 ‘희망별동대’를 후원하기 위한 희망펀드 캠페인을 실시했다. 희망펀드는 희망별동대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거나, 응원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리트윗(전달)할 때마다 한국후지제록스에서 1인당 20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학인포메이션

연초부터 IT 융합 · 신산업 발전정책 쏟아진다

신묘년 새해 IT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진다.

연초 산업융합촉진전략과 스마트 TV와 전자태그(RFID) 발전전략, 차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 전략이 발표되는 등 다양한 IT·융합산업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새해 발표되는 정책들은 기존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도화, 새로운 IT 신산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15여건의 IT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기술동향에 맞춰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초에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촉진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확정된 산업융합 촉진법을 근거로 다양한 산업지원 근거, 융합산업 발전 모델, 산업 간의 접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1월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해 ‘스마트TV 발전전략’도 발표한다.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망 증설 투자, 관련 플랫폼과 이용자환경(UI), 관련제도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와 연계한 핵심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고속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 전략’도 연초 공개된다. 4G 등 차세대 이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모바일 융합 활성화,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4G 베이스밴드 모뎀칩 등의 기술개발 전략도 연내 별도로 추진된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 동반 육성책도 상반기에 마련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를 IT융합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두개 산업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산업 동반 육성 전략 등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융합발전전략

은 LED 조명 확산 등 시장 확대에 집중하면서 관련 소재·장비산업 육성 계획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구상 중이다.

IT를 보안산업에 접목한 홈랜드시큐리티 사업은 전략적 R&D와 함께 현장용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지경부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되는 프로젝트다.

IT 현장에 맞는 청년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IT교육 개선방안’도 교과부와 지경부 등이 함께 마련 중이다. 현장과 대학 간의 고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면서 IT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성격을 띠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다. 관련 기술 개발사업, 클라우드컴퓨팅 표준가이드 수립,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 RFID, 인쇄전자, 센서산업, 레이저 산업 발전전략 등 IT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산업육성 정책도 업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될 계획이다.

중국, 전자제품 올해 4월부터 유해물질 규제

중국이 새해 상반기부터 TV·휴대폰·PC 등의 전자제품·부품 유해물질을 규제할 전망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은 최근 중국규제당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이 1단계로 올해 4월부터 유해물질규제 관련 자발적 인증(SRVC)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TV, 휴대폰, 유·무선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개 제품·부품이다.

중국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등 6개 규제물질을 EU 수준으로 제한하며 새해 3월경 자발적 인증에 관한 시험분석 및 인증절차, 기관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2012년 하반기부터 규제범위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해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진흥회는 중국의 유해물질규제가 EU RoHS(유해물질제한) 지침보다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완제품업체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하고 부품소재 기업들은 완제품업체가 관리하는 반면, 중국은 부품소재업체들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자발적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용과 시간, 절차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전자진흥회의 평가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제품 수출 기업들은 대체물질 개발, 거래선 전환, 공정개선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연구개발(R&D), 컨설팅, 시험분석 등 인프라 구축 지원도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진흥회는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이나(China)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중국 주요 정부기관 및 시험분석기관들과 규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1033억 투입 수출용 휴대폰·부품 테스트 인프라 구축
수출용 휴대폰과 관련 부품소재 사전 테스트를 위한 전문 자원센터가 경북 구미에 세워졌다. 센터가 본격가동되면 테스트 기간이 줄어 휴대폰 출시기간이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광학이벤트

한국광학회, 201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 2월 10일~11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려 -

한국광학회의 동계학술발표회가 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미국광학회 차기회장 선출자, 비선형광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학제간 광응용 생체영상연구의 국내 최고전문가의 초청강연과 함께 태양전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야의 광학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동계학술대회 기간동안 2005년부터 시작하여 한국광학회의 광산업 전시회로 확고히 자리잡은 'OptoWin 2011' 도 열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소개뿐 아니라 산학협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광학회 동계학술대회 기간에 한국광학회와 디스플레이 연구조합 공동 주관으로 '2011 디지털 리소그래피 워크샵' 도 개최될 예정이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수출용 제품 및 부품소재의 국내 사전테스트를 위한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개소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차세대 휴대폰 및 모바일 융합기술의 종합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에는 국비 553억원, 경북과 구미에서 260억원, 민자 220억원 등 총 1033억원이 투입돼 2세대 이동통신부터 4세대 이동통신까지 휴대폰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오는 2015년까지 갖추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을 통해 해외 현지 테스트 비용이 1개 모델당 1900만원, 국가적으로 연간 500억~1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휴대폰을 포함한 모바일 단말기는 수출 국가마다 통신망 환경이 서로 달라 수출용 제품 및 부품의 현지 테스트가 필수다. 현재 해외 테스트 비용은 한 모델당 평균 1923만원으로 테스트 기간도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곳에는 세계 4세대 이동통신기술(LTE Adv와 WiMAX Adv) 및 3세대 이동통신(HSPA+, UMTS) 3.5세대 와이맥스(WiMAX) 그리고 DMB, 모바일 IPTV 등 모든 휴대폰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내년도 국비 117억원 전액도 확보한 상태여서 테스트를 위한 장비 구축이 조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광학뉴스라인

정부·업계 “부품소재특별법 존치 필요” 한목소리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올해 말 효력정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법 존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별도 지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발효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돼 효력정지 1년을 앞두고 있다. 법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별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업 육

성,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부품소재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상황이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분야가 세트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융합산업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관련 법안의 존치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대일 역조 개선과 핵심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 양성 등 아직 개선할 분야가 많아 관련법을 존치 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새해부터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업계 역시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부품소재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난 9년간 전체 수출 가운데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47%로 높아졌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70.1에서 87.6까지 올라서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483개서 3207개로 늘었다.

부품업체 세트시장으로 '돌격'

광학 입력장치 전문업체인 크루셜텍은 최근 스마트TV·IPTV용 컨트롤러인 '에어로 마우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입력장치로 활용되던 옵티컬트랙패드(OTP)가 장착돼 기존 리모컨보다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 원가 경쟁력도 높아 IPTV 통신사업자, TV 제조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크루셜텍은 그동안 OTP 등 부품제조에만 집중했지만 TV 컨트롤러를 출시하며 전방산업인 세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크루셜텍은 OTP뿐만 아니라 제반 솔루션부터 에어로 마우스 제조공정까지 대부분을 자체 기술로 처리하고 있다. 휴대폰 부품 전문업체인 파트론도 OTP와 비슷한 제품인 광마우스를 기반으로 TV 리모컨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메라모듈업체 엠씨넥스는 CCTV와 비디오폰 기능을 접목한 '미디어 비디오리코더(MVR)'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에 비디오폰·전화·DMB·디지털액자·디지털셀프카메라·MP3플레이어·FM라디오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DVR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를 주로 생산해온 이 업체는 부품 및 SW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방산업인 보안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엠씨넥스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은 본사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구축해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 나선다. 전국 5대 광역시에는 유통 대리점을 설립해 지역 유통망을 개척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외 벤더를 이용한 기업간거래(B2B) 시장 수요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LG의 부품전문회사인 LG이노텍도 지난해초 인터파크와의 제휴를 통해 전자책단말기인 '비스킷'을 출시한 바 있다. 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세트 제품이라는 게 LG이노텍의 설명이다.

과거에도 부품업체가 세트 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다.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완전히 새로운 세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키패드 전문업체인 서원인텍이 와이브로 단말기 시장에 진출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예 관련 전방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신성장산업을 계기로 부품업체들이 규모를 키웠고, 일부 업체는 세트산업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 및 자본을 축적했다"면서 "IT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부품업체들이 세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카메라 '거울 전쟁' 2013년 결론 난다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에게 '고급 카메라'는 렌즈를 바꾸는 카메라를 뜻한다. 이런 카메라의 대표는 DSLR 카메라. 카메라 안의 이미지 센서(필름과 같은 역할) 앞에 거울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센서에 생기는 이미지가 같도록 하는 장치다. 사진 찍는 소리인 "찰칵"도 이 거울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다. 그러나 이는 필름 카메라 시대의 유물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카메라 후면에 붙은 LCD로 찍힐 장면을 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거울이 필요 없다. 그래서 거울이 없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왔다.

미러리스의 장점은 거울이 없는 만큼 크기와 무게가 줄어든다는 점. 작은 렌즈를 끼면 콤팩트 카메라처럼 보일 정도로 작다. 즉 DSLR처럼 렌즈를 바꿔가며 찍을 수 있지만 크기는 콤팩트 카메라보다 약간 크다. 그래서 하이브리드(hybrid·혼합) 카메라라고도 불린다. 단점은 아직 쓸 수 있는 고급렌즈의 수가 DSLR에 비해 턱없이 적고, 셔터의 반응 속도, 초고해상도 사진 등에서 밀린다는 점. 스포츠 보도 사진·화보 사진 등에서는 아직 쓰이기 힘들다.

전쟁 판세는 2008년 11월 파나소닉 제품으로 처음 등장한 미러리스가 기존 DSLR의 성을 서서히 깨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러리스 카메라

를 만드는 회사는 파나소닉(GF 등), 올림푸스(PEN), 삼성(NX), 소니(NEX) 순. DSLR에서는 캐논, 니콘이 확고하다.

미러리스 제작 회사들은 모두 “2013년에는 판매량에서 미러리스가 DSLR을 뒤집는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난해 판매된 디지털 카메라는 1억3110만대이며, 이중 DSLR은 890만대, 미러리스 150만대로 추정된다. 이게 2013년에는 전체 1억3770만대에 DSLR 710만대, 미러리스 930만대로 역전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술 혁신으로 기존 미러리스의 단점이 보완된다는 것.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에 완전히 밀린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레이저 프린터 시장 치열한 2위 다툼

레이저 프린터 시장에서 후발업체들의 도전이 거세다. 주요 프린터 업체들이 파격적인 가격과 다양한 신제품으로 앞세워 경쟁 대열에 합류하면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국내 레이저 프린터 시장에 치열한 2위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업체에 따르면 후지제록스프린터스코리아는 지난달 초 초소형 컬러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신제품 6종을 선보이고 국내 레이저 프린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1,200dpi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독자 광원 기술인 '셀프 스캐닝 발광다이오드(LED)을 탑재, 한층 선명한 인쇄 품질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흑백 레이저 프린터에 저광택 토너를 적용하는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특히 업계 최초로 핑크 색상을 적용한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를 출시하는 등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국엠손도 최근 소호(SOHO)와 중소기업을 겨냥한 소형 컬러 레이저 프린터 2종과 흑백 레이저 프린터 4종을 내놨다. 컬러 레이저 프린터인 '아큐레이저 C3900N'은 컬러와 흑백 모두 30ppm 출력속도와 600x600dpi 해상도를 지원하며 최대 12만장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최대한 전력 소모를 막아주는 기능과 최상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토너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췄다.

신도리코는 신개념 A3 컬러 레이저 복합기인 'D400 시리즈' 3종을 출시하고 기업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이 제품은 새로운 토너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에 비해 선명한 출력을 제공하며 컬러 출력 시에도 흑백과 동일한 속도를 구현해 빠르고 정교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인쇄소와 전문출력소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 솔루션인 '포스트스크립트'를 기본 탑재하는 등 고객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후발업체들이 잇따라 레이저 프린터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은 국내 잉크젯 프린터 시장이 140만대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한국 IDC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기를 포함한 국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지난해 77만대보다 25.4% 포인트가 늘어난 96만대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고객들이 일반 레이저 프린터에 비해 복사와 스캔 기능까지 지원하는 레이저 복합기를 선호하면서 보급형 레이저 복합기의 가격이 20만원대로 떨어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

율 54%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캐논과 HP, 후지제록스 등이 1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치열한 2위 다툼을 펼치고 있다.

2010년 프린터 수출 첫 10억달러 돌파

프린터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상했다.

지식경제부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프린터 수출액은 10억50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을 한 달 남기고도 지난해 총수출액을 웃돈 것이며 동시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산통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프린터 수출은 지난 2009년 9억5000만달러가 가장 높았다. 프린터는 세계 시장 규모가 150조원에 달해 주력 수출제품인 메모리반도체(60조원), 디지털TV(110조원)보다 큰 거대 시장이지만 HP·캐논·엠손 등 미국과 일본 소수의 거대기업들의 기술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국내 기업이 2000년 이후 레이저 프린터 기술개발에 나서고, 자체 브랜드를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6년 이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내 프린터 수출에 적극적인 기업은 삼성전자·신도리코·캐논코리아비즈니스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2007년 미래 신수종 6대 사업 중 하나로 프린터를 꼽아 레이저프린터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신도리코는 중국에 대규모 프린터 공장을 지으며 복사기에 이어 프린터를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롯데와 캐논이 국내 합작 설립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캐논그룹 내에서 중소형 복합기 핵심기지로 위상이 오르면서 국내 프린터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IT 수출품 중 프린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준으로 18.7%인 메모리반도체, 22.1%인 평판디스플레이와 상대적 큰 격차가 있지만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 조만간 HDD와 모니터를 뛰어넘는 수출 효과상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레이저 마킹 기술 특허출원 증가세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나, 이미지를 표면에 마킹해야 하는 분야에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는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이루는 재질은 대부분 단단한 플라스틱이나 금속판이다. 이들의 표면에 바코드나, 이미지를 마킹하는 방법으로 종래에는 송곳 등으로 직접 새기거나 부분적으로 표면을 부식시키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작업 시간이 길고 부품에 변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레이저(LASER)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레이저 활용 방식은 5000℃ 안팎의 고온 열에너지인 레이저로 물체 표면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마킹하는 것으로, 반영구적이면서 깨끗한 형상으로 마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레이저 마킹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최근 10년간 1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 인별로 보면 내국인이 123건을 출원, 69%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인 55건을 출원했다. 내국인의 주요 출원인은 포스코, 이오테크닉스, LS산전 등이 있다.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미국이 17건, 유럽이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공 대상별로 보면 ▲반도체 82건 ▲절삭공구·자동차 부품 17건 ▲핸드폰·컴퓨터 14건 ▲유리류 8건

▲플라스틱 카드류 5건 ▲보석류 4건 ▲기타 48건이 출원됐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 표면에 색상까지 입히는 컬러 조각 기술 출원은 지난 2005년 전까지 총 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만 5건이 출원돼 출원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BLU 업체들 신사업 중간 점검 “아직 갈 길 멀네”

LCD용 백라이트유닛(BLU) 업체들이 저마다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중간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BLU 사업 수익성이 갈수록 박해지고 있는 만큼 신사업 성패가 향후 사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에 진출한 업체가 주를 이루는가 하면 원천 부품·소재 등 후방 사업으로 눈을 돌린 곳도 등장하고 있다.

BLU 업체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사업이 LED 조명이다. BLU 제조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LED·광학 필름·인버터·인쇄회로기판(PCB) 등 관련 부품·소재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LED 평판조명의 경우 BLU와 구조 및 부품이 거의 동일하다. 이에 따라 한솔LCD·디에스엘시디 등이 LED 조명 풀라인업을 갖추었으며, 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뉴옵틱스도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BLU 핵심 부품인 냉음극형광램프(CCFL) 업체들도 LED 조명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금호전기·우리ETI 등은 지난해 ‘LED TV’ 시장 성장으로 CCFL 출하량 증가세가 꺾이자 LED 조명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금호전기가 ‘번개표’라는 브랜드로, 우리ETI는 모회사인 우리조명에서 조명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BLU 업체들이 대거 LED 조명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관련 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삼성LED·LG전자·루멘스 등 패키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전문 업체들과 중소 LED 조명업체까지 경쟁에 가세하는 반면, 민간 시장 개화는 아직 요원한 탓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판매한 삼성LED·필립스LED 조명 판매량을 모두 합쳐도 147만원 남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LED 조명에 진출한 BLU 관련 기업들의 이 분야 매출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한 LED 조명 산업을 벗어나 후방 부품·소재 산업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도광판 및 BLU 업체인 레이젠은 사파이어 잉곳의 원재료인 고순도 알루미늄(Al_2O_3)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l_2O_3 는 사파이어 잉곳 생산량이 늘면서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ED 조명 사업을 확장 중인 한솔LCD는 올해 초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전문업체인 크리스탈온을 인수했다. 동시에 웨이퍼 전 단계인 잉곳 생산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부품·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ETI는 지난 6월 홍콩 2차전지 기업인 인퍼티 에너지에 121억원을 출자, 지분 50.02%를 인수하면서 2차전지 및 관련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